

이태원의 다문화적 성격에 대한 역사적 접근*

박 경 하**

목차

- I. 머리말
- II. 전근대 시기의 이태원
- III. 근·현대 시기의 이태원
- IV. 한국 사회에서 이태원의 위상
- V. 맺음말

I. 머리말

지난 2007년 한국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다문화’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일종의 아젠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전국의 주요 공단지역 주변에는 서로 이질적인 인종·언어·종교·문화를 가진 이주민 소수자들의 거리와 상점·음식점·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 여성들

* 본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A00013).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 주로 농어촌 남성들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형성되기 시작한 다문화 공간과 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국민 국가의 경계를 넘어 탈근대적인 문화영역들이 나타나고,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지역별 다문화 공동체가 실험대에 올라 있다.⁵⁷⁾

1990년대 다문화 사회의 도래 이후 전국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의 다문화 공간으로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과 사할린 동포의 ‘고향마을’, 인천의 차이나타운, 동부 이촌동의 리틀도쿄,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래마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이태원 등이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는 주한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 외국 상품, 외국 문화의 집결지로서, 이태원을 보면 우리 사회 다문화의 現 주소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 학계에서도 인류 사회가 역동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 노동자·유학생·관광객의 유입, 국제결혼가정의 증가, 재외 동포의 귀환, 새터민 등 다양한 인종적·종교적·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공간에 대한 연구도 주목된다.⁵⁸⁾

57) 정병호·송도영 엮음, 『한국의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현암사, 2012, 17쪽.

58) 한국의 다문화공간에 대한 연구로는 아래 논문들을 참조할 것. 고민경,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본 서울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은실, 『지구화시대 근대의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대한민족지적 연구』, 『변화하는 여성문화 움직이는 지구촌』, 푸른사상, 2004; 김태영, 『서울의 외인주 택단지』, 『대한건설학회지』 35권 2호, 1991; 송도영, 『종교와 음식을 통한 도시공간의 문화적 네트워크: 이태원 이슬람 음식점들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3집 1호, 2007; 송도영, 『도시 다문화 구역의 형성과 소통의 전개방식 -서울 이태원의 사례-』, 『담론 201』 제14권 제4호, 2011, 5-39쪽; 신주백,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1884-1945)』, 『서울학연구』 제29호, 2007; 최종일, 『이태원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이즈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3; 한건수, 『국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본 논문은 한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이태원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적 성격과 공간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⁵⁹⁾ 머리말에 이은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시기적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전근대 시기와 근·현대 시기로 구분하여 ‘이태원’의 다문화적 역사성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이태원의 다문화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며, 다문화 공간 이태원의 ‘먼저 온 미래의 공간’, ‘다문화 공존의 실험 공간’으로서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전근대 시기의 이태원

이태원은 조선시대 교통·통신제도인 驛院制에서 비롯되지만, 이태원이 언제 처음 세워진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미 고려시대에도 개경에서 영남으로 가는 길목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태원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종 2년(1454)에 발간된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을 참고할 때, 조선 초에 이르러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이태원 역시 城底十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은 그다지 발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⁶⁰⁾ 그러나 조선 중

유입과정과 실태, 『아프리카학회지』 21집, 2003; 홍승표,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홍준길, 『외국인 임대주택사업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59)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공간과 관련하여 필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서양 신문명 수용의 근원지로서의 문화사적 자취가 어린 장소이자 한국의 근대가 시작되고 한국과 세계와의 만남이 시작된 대한제국 시대의 ‘정동’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박경하, 『대한제국의 다문화 공간: 정동』, 『중앙사론』 36집, 2011, 63-98쪽.

기 이후에는 경강지역의 운수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마을이 발달하게 되었다. 院은 官에서 모든 것을 관리했던 驛과 달리 가옥의 시설 및 사무는 민간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고 사무를 보는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마을도 이태원에 있었으며, 조선 초부터 빈민들이 몰려들었던 지역으로 조정에서는 賑濟場을 설치하여 빈민들의 구휼을 담당하기도 하였다.⁶¹⁾

[자료 1] 한양 도성과 서강, 마포, 용산 간의 취락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都城圖



60) 『世宗實錄地理志』京都漢城府.

61) 『朝鮮王朝實錄』, 世宗 18年(1436) 8月 5日; 『朝鮮王朝實錄』, 成宗 4年(1473) 9月 28日.

[자료 2] 〈輿地圖〉의 이태원동 일대



그렇다면 이태원⁶²⁾이라는 지명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조선 초기에는 ‘李泰院’ 혹은 ‘利泰院’으로 지금과는 한문표기가 달랐는데⁶³⁾, 산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 도성 안의 부녀자들이 빨래터로 이용하였고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고 한다.⁶⁴⁾ 아울러 1986년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韓國地名總攬』에 따르면 ‘이태원’이라는 지명에는 크게 두 가지 유래가 존재한다. 먼저 배나무 이(梨)와 역원(驛院)의 원에서 따온 이태원(梨泰院)이라는 설이 있다.⁶⁵⁾ 이태원은 한양 사대문 밖에 위치한 4대 역원 중 하나로, 유난히

62) 면적 1.37km², 인구 1만 9674명(2008)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속한 동이다. 남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의 한남동, 서쪽의 용산동, 남쪽의 동빙고동과 접한다.

63)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利泰院 在木覓山 南’이라 하여 이태원이 지금의 남산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서울역사박물관 편, 『이태원: 공간과 삶』, 서울역사박물관, 2010, 16쪽.

64) 용산구 편, 『용산구지』 (서울, 1992), 795쪽; 『慵齋叢話』 第1卷; 『練藜室記述』 第16卷.

65) 역원은 조선 초기부터 여행자 숙소로 이용되던 곳으로 서울에는 동쪽에 보제원(普濟院)과 전감원(箭串院), 남쪽에 이태원, 서쪽에 홍제원(弘濟院)이 있었다. 용산구 편, 앞의 책, 76쪽.

배 말이 많았다는 데서 이러한 이름이 유래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이태원은 공무역행차의 숙박시설로 한양-이태원-서빙고(한강진)-상림(사평리)-양재-관교-용인으로 이어져 영남으로 향하는 첫 번째 院이었다.⁶⁶⁾ 이태원을 거쳐 한강에 이르는 길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큰 어려움 없이 한성에서 한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태원을 거쳐 서빙고 나루를 이용하면 삼남지방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태원을 오가는 길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남쪽에서 오는 외국 사신일행(일본국, 유구국 등)이 집산하는 곳이라 이태원 주변으로 색주가가 물려 있었고 각종 물품이 교역되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였다.⁶⁷⁾

한편 다를 이(異)와 태반 태(胎)를 사용한 이태원(異胎院)이라는 유래도 있다. 여기에는 임진왜란 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 임진왜란 중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과 그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 모여 살던 동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⁶⁸⁾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에 항복하고 조선에 귀화한 일본인들이 거주하였다하여 이타인(異他人)으로 부르기도 하였고, 왜군들과의 혼혈들이 거주한 곳이라 하여 이태원(異胎院)으로도 불렸다.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의 왜군이 서울로 쳐들어 왔을 때, 지금의 이태원이란 곳에 운종사(雲鐘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는 여승들이 있었다. 왜장 가도모 기요마사(加藤清正)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운종사에 들어가서 그 절의 여승을 탈취하여 그곳에서 얼마동안 머물러 지내다가 그들이 떠나갈 때는 그 절을 불태워 버리고 말았다.⁶⁹⁾ 그 때 왜병들에게 겁탈당한 여승들은 그 후 갈 곳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용경산(隆景山) 부군당(府君堂) 밑에 토막을 짓고 살았는데,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자 이웃 동네 사람들이 이를 알고 그 집을 ‘이태원(異胎院)’이라 하였다고 하며, 또는

66) 서울역사박물관 편, 앞의 책, 18쪽.

67) 정학진, 앞의 논문, 59쪽.

68) 대학신문, 2012.11.18.

69) 이재근, 『서울지방의 전래동명고』, 『향토서울』 제48호, 1989, 187쪽.

왜군들이 남해안으로 물러나자 조정에서는 운종사의 여승이 출산한 아이와 각 지역에서 왜군들에게 욕을 당해 태어난 아이들을 모아 이곳에 보육원을 짓고 기르게 하니 사람들이 이태원(異胎院)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⁷⁰⁾ 현재의 명칭은 조선 효종 때 정해졌는데 이 지역에 배나무가 많아서 이태원으로 고쳤다고 전한다.

이태원이란 명칭은 조선 중기 효종 때 이곳에 배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불리어졌지만 『東國餘地備考』에 의하면 이태원을 ‘이타인(異他人)’이라고 했다.⁷¹⁾ 이타인 정착의 역사는 고려 말 거란족과 여진족의 정착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慵齋叢話』의 기록을 보면, 이태원 사람들은 다료(茶蓼)를 잘 심어 홍아(紅芽)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다료와 홍아는 귀화한 거란족과 여진족들이 주로 재배하던 작물이었다. 이들을 주로 남경(한성)에 이주시킨 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말부터 이태원 지역에 귀화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정착케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⁷²⁾

이와 같이, 어원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태원은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모여 살았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⁷³⁾ 이태원은 조선시대 초에는 한성부 성저십리(城底十里) 지역이었고, 1751년(영조 27)에는 한성부 남부 둔지방 이태원계(梨泰院契)였다.⁷⁴⁾

70) 문화공보부 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서울편』, 1979, 31~32쪽.

71) 『東國餘地備考』驛院條

72) 『慵齋叢話』第7卷; 정학진, 앞의 논문, 58쪽.

73) 이태원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갔다 돌아 온 부녀자들이 모여 살았다는 전설도 있다. 끌려갔던 포로들은 도망치거나 贖還市를 통해 풀려났는데, 부녀자들의 경우 還鄉女라고 불리면서 경원시 되었고 가족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이 많았다. 한희숙, 『용산 속의 전쟁사와 군사문화』, 용산문화원, 2001, 59쪽.

74) 이태원의 본래 위치는 오늘날의 이태원 거리와는 전혀 다른 현 용산중고등학교 자리였다. 이태원 마을은 남산 2호 터널 남쪽 입구의 군인아파트가 있던 곳에 있었으나 1906년 일제가 이 일대를 군용지로 지정하고 가옥을 철거한 뒤에는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다. 이태원동 마을은 원래 현 이태원 2동 중앙경리단 주변으로, 이 부근에는 지금도 이태원 부군당이 있어, 매년 당제가 열리는 등 예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1914년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漢芝面) 梨泰院里가 되었다가 1936년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梨泰院町이 되었다. 1943년 용산구에 속한 뒤 1946년 이태원동으로 바뀌게 된다.⁷⁵⁾

Ⅲ. 근·현대 시기의 이태원

이태원을 포함한 용산 지역은 과거 한강의 물길에 닿는 교통의 요지였다. 이 점 때문에 용산은 한양의 관문이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이태원을 포함한 용산은 역사적으로 외국군대의 주둔지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료 3] 개항기 용산나루 전경



시 도시계획으로 인해 남산기슭 급경사상에 이태원로가 뚫리면서 ‘이태원’은 구 이태원 마을자리로부터 해밀턴 호텔을 중심으로 한 현 위치로 옮겨오게 되었다.

75) 용산구 편, 『龍山區誌』, 1992), 795쪽.

[자료 4] 일제강점기 용산 나루에서의 골재 채취



고려시대 원 간섭기에는 용산에 몽고군의 병참기지가 있었고, 임진왜란 시기에는 왜군의 보급기지가 설치되었다.⁷⁶⁾ 임오군란(1882) 때에는 청군 제독 오장경(吳長慶)의 부대가 둔지산에 주둔하고, 총병(總兵) 황사림(黃仕林)의 부대가 남대문 밖 남단(南壇) 서쪽(현 용산고 남쪽)에 주둔하였다.⁷⁷⁾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의 독점적 지배권을 획득하고 영구적인 일본군 주둔을 목적으로 1906년부터 용산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⁷⁸⁾ 1906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용산기지 공사는 1913년 11월 기타 부속건물들이 완공되면서 끝이 난다.⁷⁹⁾ 용산에 일본군 기지가 완성되자 일본인 거주민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04년

76) 최종일, 앞의 논문, 23쪽.

77) 이경재, 『서울정도 600년 3』, 서울신문사, 1994, 177쪽.

78) 일본은 병력과 군수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06년 6월 서울역 앞에서 동자동, 갈월동, 남영동을 거쳐 용산역을 지나 한강으로 통하는 대로를 완성하고 1908년 12월 후암동에서 현 용산고등학교 사이를 지나 남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완성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31쪽.

79) 용산구 편, 『龍山區誌』, 1992, 105쪽.

350명이었던 것이 1908년에는 6,300명, 1909년에는 1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⁸⁰⁾ 그러나 이태원 지역의 일본인 유입은 실제로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3년 12월 말 기준 국적별 인구통계를 보면 이태원 전체 가구 및 인구의 8-9%가 일본인으로 나타난다.⁸¹⁾ 군인 관사와 일반 가족들이 지금의 이태원 시장 뒤편과 용산구청 자리에 있었고, 이태원 주변의 큰 과수원들은 거의 일본인의 소유로 나타난다.⁸²⁾ 이후 일본은 대륙침략을 위해 한반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주 병력의 주둔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1915년 조선 주둔군 병력을 2개 사단 규모로 늘리고 주둔군의 형태도 교대 주둔이 아닌 상주 형태로 전환시켰다.⁸³⁾ 일본의 주둔군 사령부가 있던 용산기지는 1942년부터는 지원기지 형태로 변화되고 주둔 병력은 크게 감소했으며,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이후인 9월 9일 조선총독과 일본군 제17방면군 사령관이 국내로 진주한 미군에 정식으로 항복하면서 용산기지는 미군의 관리하게 들어가게 되었다.⁸⁴⁾

광복 후에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기존 일본제국 병영의 일부를 이용하면서 이태원 부근에 자리를 잡았고, 이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현재의 미군부대로 이어졌다. 이후 1949년 6월 29일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

80) 경성부,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경성부, 1927, 1055쪽.

81) 용산 일본거류민단이 설치된 것은 1907년 9월 15일자 총독부 고시 제116호에 의해서였다. 이때 용산 일본거류민단의 구역은 양화진에서부터 강서, 공릉리를 거쳐 경성거류민단 경계선에 접하고 서빙고까지 이르는 한강 우안 일대의 지역이다. 용산구 편, 『龍山區誌』, 1992, 108쪽에서 재인용.

82)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자료집: 일제강점기편』, 서울특별시, 1993.

83) 일본군 제19사단과 제20사단을 1919년 2월과 1921년 4월에 편성을 완료하고 이중 20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병력을 용산에 주둔시켰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33쪽.

84)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가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위해 진주한 미24군단 하지(John Hodge) 중장에게 항복함으로써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는 미군에게 넘어갔고 일본군이 사용하던 용산의 병영 및 군사시설 또한 미군이 접수하였다. 같은 책, 49쪽.

기고 미군이 철수하자 용산기지는 잠시 비어있게 되지만,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용산기지는 다시 미군에 의해 사용되게 된다. 용산기지에 대규모 미군 병력이 주둔하게 된 것은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15일 종로구 동승동에 있던 미8군 사령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부터이다. 이로써 용산기지의 미8군 역사가 시작된다.

이태원은 광복 이후 급증한 서울인구의 집단거주지역으로 바뀌어 문화촌·해방촌⁸⁵⁾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6·25 전쟁 후 미군이 용산 일대에 주둔하고 외국 공관이 많이 들어서면서 값싼 제품을 살 수 있는 쇼핑거리가 형성되었다. 주변의 미8군 주둔지역과 연계한 이태원 상가가 새로운 상업문화를 형성하여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1957년 미군의 외박·외출이 허용되면서 양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기지촌이 급격하게 번창하기 시작했다.⁸⁶⁾ 1960년대 말까지 미군 대상 매춘업소가 남산3호 터널 입구부터 이태원 입구까지 해방촌과 삼각지 파출소 뒷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특히 미군의 외박과 외출이 허용된 1957년부터 이태원에는 기지촌과 그를 둘러싼 문화가 급속하게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은 ‘텍사스촌’이라 불리며 자연스레 미국 문화 소비의 공간으로 변화해 갔다. 이태원의 메인 거리인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미군 군인들을 고객으로 한 큰옷, 큰 신발 시장이 형성됐고,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이 즐겨 듣던 재즈를 감상할 수 있는 재즈바도 첫선을 보였다. 또한 1957년 ‘유엔클럽’을 시작으로 이태원에 클럽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군을 고객으로 한 유흥업소가 이태원에서 하나 둘씩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태원은 미국 현지의

85) 해방촌은 1945년 광복 이후 북한에서 남하한 이북 사람들이 판자집을 짓고 주거지를 이룬 지역이다. 이태원 지역의 판자촌은 점차 보광동과 한남동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같은 책, 61쪽.

86) 1960년 양공주의 숫자는 용산경찰서의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800여 명에 이르며, 1962년 이태원, 삼각지, 한남동 지역의 양공주는 9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최종일, 앞의 논문, 28쪽; 동아일보, 1962.08.14.; 동아일보, 1960.10.27.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태원을 언급하면서 용산기지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미군의 유흥과 편의를 제공하는 기지촌과 윤락을 제공하는 양공주의 존재였다.⁸⁷⁾ 미군을 대상으로 한 매춘 여성들 또한 이태원을 중심으로 몰려들었다. 1960년대 말까지 미군을 대상으로 했던 매춘업소는 현재 녹사평역 일대 해방촌에서부터 이태원로에 이르는 넓은 권역에서 성행했다. 당시에는 미군에서도 백인과 흑인의 인종갈등이 있어서 인종별로 출입하는 지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태원에서 삼각지 쪽은 흑인전용 지역으로 클럽형태였고, 해방촌 지역은 백인들 전용지역으로 흥등가의 형태였다.⁸⁸⁾ 1960년 용산경찰서의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용산 미군기지 주변 양공주의 절반 이상이 한남동 일대에서 미군과 정식 동거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태원 일대에 흩어져 있었다.⁸⁹⁾ 양공주는 미군을 상대로 윤락업을 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존재이자 미군 PX물품이 유입되는 창구이기도 했다. 미군과 연결되어 있는 양공주와 중개상을 통해 많은 PX물건이 이태원을 통해 국내 시장에 흘러들어 갔다.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씨레이션(C-ration)과 같은 식음료는 1960년대 당시 훌륭한 영양식품이었고 라디오와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은 국산품이 없던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해방 이후 이태원에 기지촌이 형성되는 변화와 함께 주거지도 비약적으로 변화되어 갔다. 한국 정부가 이태원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서빙고동, 한남동, 동부 이촌동 일대에 외국인 전용주택과 아파트는 물론 고급 외국인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⁹⁰⁾ 1960년대 이후 한국에 들어온 각국의

87) 이태원에 유흥업소와 접대부들이 유입된 것은 휴전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부터이고 해방이전 군인을 위한 윤락 및 유흥업소는 이태원이 아닌 용산역 부근과 원효로, 남영동, 갈월동 일대였다. 최종일, 앞의 논문, 25쪽.

88) 유국치, 『실화 서울 이태원: 여기 사랑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풀잎, 1992.

89) 동아일보, 1960.10.27.

대사관이 대거 입주했고, 그 영향으로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고급주택 단지가 조성되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쇼핑지구가 형성돼 88올림픽 당시 이태원 상가 점포는 1,8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쇼핑의 중심지로 주목받았다.⁹¹⁾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밀턴 호텔과 이태원 시장을 따라 이태원에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쇼핑지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⁹²⁾ 이는 자원이 부족하고 값싼 인력이 풍부했던 한국에서 당시 가공무역에 주력했던 데서 기인한다. 정부에서 보세제품 수출정책을 추진하면서 이태원 일대에 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양복점, 유기점, 신발가게, 구둣방, 보세점이 생겨났고, 뒷골목에는 수출용 가내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보세상품은 1980년대까지 이태원이 국제적인 쇼핑지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세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태원으로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이태원 상가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⁹³⁾ 이렇게 형성된 이태원 상가 일대는 86아시아엑스포, 88서울올림픽 등의 국제행사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알려지면서 한국의 유명 쇼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⁹⁴⁾ 특히, 이태원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가 성업을 이루었다.⁹⁵⁾

90) 1956년 한국정부는 미군 가족 및 장병들을 위해 주택 108동을 건설하였고 더불어 동·서빙고동과 한남동 일대에 서양식 고급주택지가 들어섰다. 한남동의 유엔빌리지는 1959년부터 1969년까지 순차적으로 264가구가 건설되었으며, 이태원과 한남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최종일, 앞의 논문, 30쪽.

91) 서울신문, 2010.06.28., 28면.

92) 용산구 편, 『龍山區誌』, 1992, 475-476쪽.

93) 김은실, 앞의 논문, 34-35쪽.

94) 매일경제, 1986.07.02; 동아일보, 1985.08.15; 동아일보, 1986.09.04.

이태원에 자리 잡았던 보세상권은 1990년대 후반 불황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대신 다양한 외국인 소수자 집단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가장 큰 변화로는 쿼어 문화가 이태원에 자리를 잡은 것을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 이태원의 유흥가에 게이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1996년 이태원 최초로 게이바 ‘터널’이 문을 연 이후 서구식의 게이바들이 이태원에 점차 들어서게 되었다.⁹⁵⁾ 예로부터 미군을 중심으로 서구식 문화가 자리를 잡아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장벽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1976년 이슬람 성원의 건립과 상대적으로싼 지가를 기반으로 무슬림들도 정착하게 되었다.⁹⁷⁾ 이를 바탕으로 이태원은 경직된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로서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다.

이태원은 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인의 유입이 늘면서 현재는 판자집과 대저택이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연출한다. 남산 기슭의 하얏트호텔과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에는 외국 공관을 중심으로 부유한 외국인이, 이태원로 남쪽의 이태원동과 보광동 일대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들어온 외국인과 국내 저소득층 주민이 주로 분포해 있다. 1997년 서울 최초의 외국인 관광특구로 지정돼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이태원 상권은 '88 올림픽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점차 줄고 서울시의 퇴폐업소 단속 강화, 1990년대 초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눈에 띄게 위축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강남이나 신촌, 홍대입구 등 새로운 유흥지역이 등장하고 1980년대 이후 미군 사병이 이태원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마저

95) 1980년대 말부터는 외국에서 온 보따리 상인들의 소규모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태원 쇼핑가의 매출을 끌어올리기도 하였다. 이후 공산권 국가들과도 수교를 하면서 러시아 및 동유럽권 등지에서 보따리 상인들이 이태원시장을 찾아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보따리 상인들이 몰려들기도 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78쪽.

96) 김은실, 앞의 논문, 54쪽.

97) 대학신문, 2012.11.18.

형성돼 불황을 겪었다.⁹⁸⁾ 이태원은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건너온 외국인들이 서서히 새로운 상권과 새로운 문화의 유입지로서의 위상을 형성해가고 있다.

IV. 한국 사회에서 이태원의 위상

이태원은 광복 이래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던 곳이며, 세계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공간이다. 용산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이태원에는 나이지리아, 미국, 일본 등 총 80개국 출신의 이주민들이 거주 중이다. 중국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리봉동 등지의 외국인 밀집 지역과 달리 이태원을 구성하는 피부색은 다채롭다. 또한 단기 숙소에 머무는 일시적인 방문객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까지 이태원에는 각계각층의 이민자가 존재한다. 또한, ‘이태원’하면 일반적으로 이국적인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를 떠올리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이태원이 오로지 상권으로만 대변되는 공간은 아니다. 이국적인 식당과 기념품점과 같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거리’로서 기능하면서도 이태원은 실제 그 속에 살고 있는 다문화적 삶의 양식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태원의 다문화적 특성은 이태원로의 남쪽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이태원 소방서를 따라 보광동 언덕으로 올라가면 골목마다 아프리카 거리, 게이힐, 이슬람 거리 등 저마다의 이름이 명명돼 있다. 거리 이름에 걸맞게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이 하나둘씩 이태원에 등지를 틀면서 독특한 비주류 문화를 가꿔나가고 있다.

98) 연합뉴스, 2010.04.13.

[자료 5] 이태원 거리 풍경



[자료 6] 이태원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1990년대 후반부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이슬람국가로부터의 산업연구생 및 임금노동자들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무슬림 역시 이태원에 정착하기 시작한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할랄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였다.⁹⁹⁾ 이태원 이슬람거리에는 이슬람식으로 도축한 고기만 판매하는 정육점 ‘할랄(Halal)’과 식품점, 히잡 가게, 이슬람 전문서점 등이 입점해 있다. 이 거리는 1976년 국내 최초로 한국 이슬람중앙성원이 건립되면서 조성되었다. 성원을 중심으로 이태원 무슬림 공동거주지의 초석이 마련되었고, 1980년대부터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출신 무슬림 이민자들이 모이면서 지금의 거리가 형성된 것이다. 이슬람성원을 중심으로 한 이 거리는 무슬림들의 신앙의 장소인 동시에 다양한 문화를 이어주는 교두보로 기능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집합지로 유명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아프리카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1990년대 들어 ‘아프리카 타운’이 형성되고 있다.¹⁰⁰⁾ 이들이 한국에 들어 온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나이지리아인들과 가나인들이 원목수송선 등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이태원에 모여 들면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이태원 정착이 시작된 것이다.¹⁰¹⁾ 애초 아프리카 거리는 미8군 기지 군인들의 쇼핑 지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용산 미군 기지 이전이 확정되고 테러 위협으로 미군의 외출이 통제되면서 아프리카 노동자와 상인이 대거 이주해 거리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대다수가 빈

99)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96쪽.

100) 이태원을 담당하는 용산구청에 따르면 2004년 3분기 385명이었던 용산구 거주 아프리카인은 2009년 3분기에는 706명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사이 80%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태원 1동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1,519명 중 14.61%(222명)에 불과했던 아프리카인 비율이 2010년에는 1,929명 중 15.50%(299명)로 높아졌다. 또 용산구청이 지난 1월 파악한 ‘이태원동 거주 외국인 현황’을 보면 이태원1동과 2동에 사는 아프리카인은 391명으로 이 지역에 사는 전체 외국인 2,337명 중 16.37%를 차지했다. 6명 중 1명이 아프리카인인 셈이다. 연합뉴스문, 연합뉴스문 2010.04.13.

101) 한건수, 앞의 논문, 225쪽.

곤충인 이들은 일상사에 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함께 모여 살려는 성향이 특히 강한 편이다.¹⁰²⁾ 통계청이 조사한 ‘장단기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전체 아프리카인은 7,191명이다. 그러나 이태원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 중 상당수가 비자 없이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의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주로 해밀턴호텔 건너편 첫 번째 골목인 이화시장 골목으로 모여들었다. 아프리카다운에는 독특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거리에는 2005년부터 아프리카인을 위한 음식점, 옷가게, 미용실이 성업 중이다. 특히 다루기 어려운 흑인의 곱슬머리를 전문적으로 다듬는 미용실은 아프리카 거리만의 특색이다. 현재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흑인들도 이 거리에 와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정도로 흑인 관련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용산구청 통계에 따르면 이 골목에는 500명이 넘는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¹⁰³⁾

최근에는 성적 취향으로 소외받아온 퀴어들이 이태원에 등지를 틀었다. 소방서길을 따라 아프리카 거리를 지나면 나오는 언덕길은 일명 ‘게이힐’이라 불리는데 이 길에는 게이바들이 밀집되어 있다. 현재 이태원은 한국에서 게이클럽이 유일하게 있는 곳으로 주말이면 수백 명의 게이들이 모여든다. 성적 소수자들의 커뮤니티가 한국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004년에 이르러서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점에서 알 수 있듯 퀴어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편향돼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퀴어 술집은 도시 내에 거주하는 퀴어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곳이며, 퀴어들에게 게이바란 유흥 공간 그 이상의 공간적 의미를 갖는다.

102) 거리 주변에는 아프리카인을 위한 교회만 7개나 된다. 가장 규모가 큰 ‘마운틴 오브 파이어(Mountain of Fire)’나 ‘워드 오브 페이스(Word of Faith)’ 교회에는 예배시간 별로 이주민 70~80명이 모인다. 연합뉴스, 2010.04.13.

103)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97쪽.

이태원의 다문화적 성격에 대한 역사적 접근

[자료 7] 이태원 지구촌 축제 포스터



[자료 8] 이태원 지구촌 축제 사진



외국인을 위한 호텔, 음식점, 상가 등이 늘어나면서 이태원에는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증가된 유동인구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1994년 이태원 상인연합회는 이태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용산구 의회에 요청하게 되고 용산구 의회는 주민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에 건의하게 된다. 이후 서울시와의 협상 끝에 1997년 9월 27일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간 1.4km 지역이 이태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¹⁰⁴⁾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매년 5월과 10월에 이태원 그랜드세일축제(Itaewon Grand Sale)와 이태원지구촌축제(Itaewon Global Village Festival)가 열리고 있다.¹⁰⁵⁾ 또한, 이태원에서는 단순히 유흥문화를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쿼어 커뮤니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3주년을 맞이한 쿼어문화축제에서는 매년 대미를 장식하는 쿼어퍼레이드를 종로 부근에서 시작해 이태원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태원은 우리나라에서 인종·종교·언어·문화·성적 정체성이 융합되고 있는 초국적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104)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으로 구성된 이태원에는 외국인과 외국 공관이 집중되어 있다. 이태원1동에는 총 4,277가구에 10,601명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은 1,951명(18.4%)에 달한다. 이태원2동에는 5,208가구에 11,637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 중 외국인은 370명이다. 용산구에서 한남동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이 이태원에 살고 있다. 또한 이태원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세네갈, 스리랑카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다.

105) 이태원은 서울시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며, 올해 지정 15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2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즐비한 기존의 변화가 신촌, 홍대, 강남 등지와 다르게 이태원은 독특한 다문화주의가 꽃피는 대안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태원로의 남쪽은 각각 문화적·인종적·성적 차이를 인식하고 포용하는 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대학신문, 2012.11.18.

V. 맺음말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다문화주의다.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에 있으며, 다양한 종교적·인종적·민족적 그리고 나아가 성적 취향 차이까지를 받아들이는 관점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태원이 이방인 공동체 성격이 강한 곳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전근대 시기 이태원(李泰院)은 서울 남산 기슭에 위치하였으며 서울에서 嶺南路로 향하는 첫 번째 院이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귀화한 일본인 및 왜군과의 혼혈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하여 이태원(異胎院)이라고도 불렸으며, 효종 때 이곳에 배나무가 많다 하여 지금의 이태원(梨泰院)으로 바뀌었다. 근·현대 시기 이태원은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서의 군사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1882년부터 1984년까지 임오군란을 진압하러 조선에 온 청나라 군대의 주둔지였고, 일제 강점기 들어 일본군 사령부의 주둔지였다.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섰다. 한국전쟁 뒤에는 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이태원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태원은 미군 유흥가로 거듭나 클럽이 우후죽순 들어섰다.¹⁰⁶⁾ 1960년대 이후 한국에 들어온 각국의 대사관이 이태원에 대거 입주했고, 그 영향으로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고급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쇼핑지구가 형성돼 88올림픽 당시 이태원 상가 점포는 1,800개에 이를 정도로 쇼핑의 중심지로 주목받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홍콩,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관광객과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태원은 미군 중심의 거리에서 세계인의 관광특구로서 전통과 현대, 세계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이 혼재하는 ‘퓨전’의 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

106) 서울신문, 2010.06.28, 28면.

회에서, 이태원은 한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일정한 도시 공간 내의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문화영토들을 한 조각씩이라도 확보하고 유지하고 있는 있다.

위와 같이 역사적으로 살펴 본 한국의 다문화 공간 이태원은 역사적으로 강요된 개항, 청나라 군대 및 일본 군대 등 외국 군대의 주둔, 선진문물의 유입,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미군의 진주와 6.25전쟁, 주한미군의 주둔 등 제국주의와 냉전시대의 명암이 교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탈냉전과 다문화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관광객의 증가, 재외국민의 귀환(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할린 한인 교포, 새터민 등)으로 이태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적 토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 사회가 마주치게 될 ‘먼저 온 미래의 공간’, ‘다문화 공존의 실험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이끄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인종과 문화가 얽혀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도 알 수 있다. 온전히 한국적 공간도 아니고, 외국을 고스란히 재현한 곳도 아닌 이태원을 ‘문화의 섬’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태원에서는 한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외래문화와 자생적인 문화의 융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구가 내년까지 아프리카 거리가 있는 이태원1동과 한남동, 보광동 일대의 낡은 상가와 주택을 허물고 2017년에는 뉴타운을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커뮤니티도 곧 사라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지만, 이태원은 다인종·다종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장 많이 갖춘 공간이다. 인위적인 도시계획으로 아프리카 커뮤니티에 제약을 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¹⁰⁷⁾ 이태원은 뉴욕처럼 다양한 인종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시험대

107) 연합뉴스, 2010.04.13.

이며, 비록 이민자일지라도 도시 구성원으로서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민자와 현지 원주민 간에 소통할 수 있고 다문화 도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주제어 : 이태원, 다문화, 다인종, 이주

(논문투고: 2013.11.18 / 논문심사완료: 2013.12.5 / 논문게재 확정일: 2013.12.9)

참고문헌

1. 1차 사료 및 관찬 자료집

『慵齋叢話』

『東國餘地備考』

『新增東國輿地勝覽』

『練藜室記述』

『世宗實錄地理志』

『韓國地名總覽』

『朝鮮王朝實錄』

경성부,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查書』, 경성부, 1927.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자료집: 일제강점기편』, 서울특별시, 1993.

용산구, 『2009 용산통계연보』 (서울, 2009).

용산구, 『2009 용산구정백서』 (서울, 2008).

용산구 편, 『龍山區誌』 (서울, 1992).

건설부 국립지리원, 『韓國地名要覽』, (서울, 1983).

2. 단행본

강혜경, 『용산 속의 외국문화』, 용산문화원, 2006.

동아일보, 『철저해부 주한미군』, 동아일보사, 1990.

박경룡, 『서울사화(史話)』, 정음문화사, 1986.

문광립, 『이태원에서 세계를 만나다』, 중앙Books, 2009.

서울역사박물관 편, 『이태원: 공간과 삶』, 서울역사박물관, 2010.

- 유국치, 『실화 서울 이태원: 여기 사랑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풀잎, 1992.
- 이경재, 『서울정도 600년』, 서울신문사, 1994.
- 이재범 외,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사』, 중심, 2001.
- 정병호·송도영 엮음, 『한국의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현암사, 2012, 17쪽.
- 한희숙, 『용산 속의 전쟁사와 군사문화』, 용산문화원, 2001.
- 홍성철, 『유곽의역사』, 페이퍼로드, 2007.

3. 논문

- 고민경,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본 서울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은실, 『지구화시대 근대의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대한민족지적 연구』, 『변화하는 여성문화 움직이는 지구촌』, 푸른사상, 2004.
- 김태영, 『서울의 외국인주택단지』, 『대한건설학회지』 35권 2호, 1991.
- 박경하, 『대한제국의 다문화공간 정동』, 『중앙사론』 36집, 2011.
- 송도영, 『종교와 음식을 통한 도시공간의 문화적 네트워크: 이태원 이슬람 음식점들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3집 1호, 2007.
- 송도영, 『도시 다문화 구역의 형성과 소통의 전개방식 -서울 이태원의 사례-』, 『담론 201』 제14권 제4호, 2011, 5-39쪽.
- 신주백,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1884-1945)』, 『서울학연구』 제 29호, 2007.
- 이재곤, 『서울지방의 전래동명고』, 『향토서울』 제48호, 1989.
- 최종일, 『이태원에 나타난 ‘아메리카나이제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3.

한건수, 「국내 아프리카 이주노동자의 유입과정과 실태」, 『아프리카학회지』 21집, 2003.

홍승표,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홍준길, 「외국인 임대주택사업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4. 신문기사

서울신문, 2010.06.28.

연합뉴스, 2010.04.13.

동아일보, 1960.10.27.

대학신문, 2012.11.18.

매일경제, 1986.07.02.

A Historical approach on Multicultural character in Itaewon space

Park, Kyoung Ha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multicultural character of Itaewon space in process of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As the starting point of Treaty of Gangwhado, this Article classified into the period of premodern, modern and present ages, and after 2007 that the population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reached a million in.

In the premodern era, Itaewon was located at the foot of Namsan in Seoul, and was the first government office which headed for Yeongnam-ro(嶺南路) from Seoul. Sinc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Imjin War, because Japanese subject by nationalization and people of mixed blood resided in Itaewon, this was called Itaewon(異泰院). In the Hyojong era, as there is many pear trees, this is changed Itaewon(梨泰院), a current name.

In the period of modern·contemporary, Itaewon strongly has revealed military character as a post of foreign army. The army of Ch'ing that attempted to suppress the Im-O Military Revolt (in 1882) was stationed at Itaewon from 1882 to 1884,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t was a post of the headquarters of Japanese army. Since Korea gained independence, the U.S military bases in Korea have been built in this area. After the Korean War, with posts of U.S army as the

center, as business district of Itaewon was formed so it was reborn an amusement center of U.S.A and then clubs sprang up everywhere. Since 1960s, embassies from all over the world moved into Itaewon, therefore till 1970s exclusive residence complex was made. Entering 1970s, shopping district for foreigners was formed, and at the time of 88 Seoul olympic the numbers of shops in Itaewon amounted to 1,800 so Itaewon as the center of shopping was received attention. In the late 1990's, as the numbers of tourists and immigrant workers of the Japanese, Chinese, Southeast Asian, African, and Middle Eastern regions increased, Itaewon as the Special Tourist Zone of people all around the world has changed from a street of the U.S forcescentric into a place of 'fusion' that things traditional, modernistic, global and korean are mixed in.

And in today's Korea that rapidly has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as diversity races · religions · cultures are mixed in Itaewon, a certain of space of the capital city Seoul, Itaewon has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zone which ensures and maintains each cultural territory just one piece.

Key Words : Itaewon, multicultural, multiethnic, migration